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



책 소개

역사 무식쟁이 박지민, 대한 제국에 떨어지다!

춤에 빠져 공부는 뒷전인 지민이는 할아버지를 따라간 덕수궁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발견한다. 회중시계를 만지작거리던 지민이는 강렬한 빛에 정신을 잃고, 깨어나 보니 과거의 ‘대한 제국’이었는데…….

‘숨 쉬는 역사’ 열다섯 번째 이야기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은 1907년, 대한 제국으로 시간 여행을 가게 된 지민이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역사 무식쟁이였던 지민이가 역사 속 사건을 직접 경험하며 역사를 왜 공부해야 하는지 깨닫는 과정이 실감나게 그려져 있다. 회중시계의 ‘과거와 현재는 하나이니, 시간의 문은 서로 이어진다.’는 문구가 의미 있게 다가오는 판타지 역사 동화다.

권인순

작가 소개

신춘문예에 <아빠의 편도 티켓>이 당선되며 동화 작가가 되었어요. 책 읽고 토론하며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십 년 넘게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독서 논술과 토론을 지도하고 있어요. 좋은 책이 주는 힘을 믿으며, 그런 글을 쓰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지금까지 쓴 책으로 《엄마 규칙에 반대한다고?》가 있어요.

달상

작가 소개

홍익대학교 애니메이션과를 졸업하고 어린이의 상상력에 커다른 날개를 달아 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린 책으로 《고기를 먹으면 왜 지구가 아플까?》 《새 발바닥의 비밀》 《신비한 지식 백화점 : 경제》 《공평한 저울 세상》 《일제 강점기 최초의 여성 의병장 윤희순》 등이 있어요.



독서단원

-독서 전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
(생각 그물)

글 : 권인순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책을 읽기 전에 ‘대한 제국’에 대해 조사하여 생각 그물을 만들어 봅시다.

대한 제국

독서단원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



-독서 중

(낱말 퍼즐)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글 : 권인순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을 읽고, 다음 낱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①	②		③			⑤		
				④					
						⑥			
⑦	⑧								
					⑪				
⑨	⑩								
				⑫			⑭		⑮
		⑬							

가로

- ① 궁궐의 음악 연주를 맡아 하던 사람. ‘전정궁가 ○○들’, ‘취타대 ○○들’.
- ④ 어떤 사실을 알아내기 위하여 남몰래 엿보거나 사정을 살피는 사람. ‘요즘 도성 안에 일본 ○○ 놈들이 판을 친다고 합니다.’
- ⑥ 조선 후기 군악대에서 악기를 연주하던 사람. ‘나는 궁중 악대인 장악과 전정궁가 소속 ○○ ○○ 김윤이다.’
- ⑦ 나라의 이름. 지민이가 시간 여행을 떠난 곳은 대한 제국이었어요.
- ⑨ 몸에 지닐 수 있게 만든 작은 시계로, 지민이가 발견한 이것에는 한자가 쓰여 있었어요.
- ⑪ 1895년 11월에 고종이 상투 풍속을 없애고 머리를 짧게 깎도록 한 명령
- ⑯ 나팔 모양으로 된 우리나라 고유의 관악기. ‘김윤은 궁중 음악가 집안에서 태어나 여덟 살부터 ○○○를 배웠다.’
- ⑭ 옷감을 파는 가게. 순이는 비단을 구하기 위해 ○○○에 갔지요.

세로

- ②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인 공사가 파견되어 머무르며 일하는 곳
- ③ 왕족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일하던 궁녀. 순이는 황태자 전하 쳐소의 ○○○○이에요.
- ⑤ 왕의 행차나 군대의 행진 등 나라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사용하던 음악으로 <무령지곡>이라고도 해요.
- ⑧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임시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
- ⑩ 덕수궁 안에 있는 정전. 진하의가 열렸던 곳이에요.
- ⑪ 옛날식 집의 벽, 기둥, 천장 등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림이나 무늬를 그린 것. ‘붉은 ○○이 칠해진 전각들은 빛을 받아 더욱 선명한 색을 드러냈다.’
- ⑫ 사람이 살거나 임시로 머무는 곳. ‘○○로 도망치다 걱정이 되어서 여기서 숨어 지켜보고 있었어요.’
- ⑯ 임금이 거처하는 집 또는 ‘전(殿)’이나 ‘각(閣)’ 자가 붙은 큰 집을 이르는 말



독서단원 -독서 중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 (독서 퀴즈)

글 : 권인순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1. 뜻을 읽고, 알맞은 낱말을 찾아 선으로 이어 봅시다. (8쪽, 10쪽, 29쪽, 57쪽, 96쪽)

- | | | |
|--|---|--------|
|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순종의 아버지 | • | 등채 |
| 팝의 황제라 불리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박지민의 우상 | • | 마이클 잭슨 |
| 고종이 대한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해에 붙인 이름 | • | 고종 |
| 취타대를 이끄는 집사가 사용하는 지휘봉 | • | 대리청정 |
| 황제가 나랏일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태자가 황제
대신 나랏일을 돌보는 일 | • | 광무 |

2. 지민이가 활동하는 댄스 동아리 이름은 무엇인가요? (10쪽)

()

3. 지민이가 역사 탐방 무리에서 빠져나와 전각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14쪽)

()

4. 지민이가 발견한 회중시계 안쪽에 새겨진 한자는 무엇이었나요? (19쪽)

()

5. 김윤을 따라간 지민이가 만난 남자들은 누구누구였나요? (33~37쪽)

()

6. 대한 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머리는 왜 짧았나요? (40쪽)

()

7. 조선 시대에 왕이 행차할 때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 () (46쪽)

① 대취타 ② 취타대 ③ 양악대 ④ 지밀나인 ⑤ 서양식 군악대

8. 지민과 김윤은 순이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 (48~55쪽)

()

9. 대한 제국 양악대 지휘자는 누구인가요? (74쪽)

()

10. 지민의 말을 들은 김윤은 왜 화를 냈을까요? (78쪽)

“난 멋질 것 같은데. 솔직히 전통 음악만 하면 좀 지루하고 따분하잖아. 신식 군악대면 엄청 세련되고 멋지겠네. 이참에 너도 태평소 말고 트럼펫이나 색소폰으로 바꾸면 어때? 태평소 신동이면 금방 배울 것 같은데…….”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김윤은 버럭 화를 냈다.

“뭐라고? 태평소는 우리의 소리이고 숨결이야. 황실 취타 내취들은 대한 제국 황실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지키지 않으면 조선의 소리가 사라지게 될 거란 말이다.”

()

11.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고 난 후 지민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82~84쪽)

마지막 비트에 맞춰 손끝을 높이 올리며 한 발을 뒤로 빼고 그대로 멈춰 섰다. 숨을 헐떡이며 땀으로 범벅이 된 앞머리를 털어 냈다.

그 순간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열띤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

12. 일본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들은 취타대 대원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94쪽)

“이런 벌레만도 못한 조센징이 어디서 감히 존엄하신 통감님의 이름을 들먹거린단 말이냐. 하긴 너희들이 감히 음악을 알겠느냐? 쓰레기 같은 음이나 낼 줄 알겠지. 가만히 두어도 각국 관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톡톡히 망신이나 당하겠지. 하하하하.”

13. 고종이 진하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128쪽)

“황 대장, 큰일 났어. 황제랑 황태자가 아직 도착을 안 했어. 황제 화나서 안 온대.”

“그게 시방 뭔 소리여? 그럼 황태자 전하는?”

만식이 아재는 흥분해서 에케르트에게 다그치듯 말했다.

“파더가, 그러니까 황제가 안 온다고 하니까 황태자도 같이 안 오겠다고 했대. 그런데 일본 관리는 권정례로 곧 식이 시작한다고 했어.”

악실의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14. 순종 황제가 다음처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49쪽)

“과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단 말이냐? 저리 일본 놈들이 도끼눈을 하고 나를 감시하고 있거늘. 이미 우리는 길을 잃었느니라.”

15. 순종 황제의 진짜 즉위식이 열리던 날, 김윤은 갑자기 대한 제국을 떠나게 된 지민에게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김윤이라면 지민에게 어떤 말을 했을지 상상하며 편지를 써 보세요.



독서단원 -독서 후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 (독서 토의·토론)

글 : 권인순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1. 저작권(창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에 대한 존중이 좀 더 엄격하게 요구되는 요즘, 무엇이 표절이고, 표절이 아닌지 그 경계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고, 그 이유를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17쪽)

“그런데 이 동작들 어디서 본 것처럼 익숙하지 않아? 이거 진짜 네가 만든 거 맞아?”

...

“뭐라고? 야! 이성준, 내가 표절이라도 했다는 거야?”

2. 처음 해 보는 일은 서투르고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춘복이 아재 대신 징을 치게 된 지민이처럼 어떤 일을 처음 하게 됐을 때 서툴렀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고, 그럴 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112쪽)

첫날은 징을 들고 있는 것도 힘들었다. 징을 세게 치면 반동 때문에 징이 흔들려서 소리가 앞으로 시원하게 쭉쭉 뻣는 게 아니라 지렁이 기어가듯이 힘없이 꾸불꾸불거렸다. 그러면 또 옆에서 춘복이 아재가 호통을 쳤다.

3. 요즘의 법과 사회적 시선에서 본다면 폭력 시위를 하는 것은 위험한 행동입니다. ‘폭력 시위도 필요하다 Vs 폭력 시위는 하면 안 된다’로 찬반을 나누어 친구들과 시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133~134쪽)

사람들은 대문을 부수고 들어가 집 여기저기에 불을 지르고 돌멩이를 던졌다. 순식간에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다. 나도 길바닥에서 커다란 돌멩이를 집어서 불타고 있는 집 안으로 던졌다.

독서단원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



-독서 후

(낱말 퍼즐 정답)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글 : 권인순 그림 : 달상 출판사 : 청어람주니어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을 읽고, 다음 낱말 퍼즐을 완성해 봅시다.

	①악	②공		③지			⑤대		
		사		④밀	정		취		
		관		나		⑥취	타	내	취
⑦국	⑧호			인					
	외				⑪단	발	령		
⑨회	⑩중	시	계		청				
	화			⑫처			⑭포	목	⑯전
	전	⑬태	평	소					각



독서단원

순종 황제와 사라진 시계의 비밀



-독서 중

(독서 퀴즈 정답)

초등학교

학년 반 번

이름 :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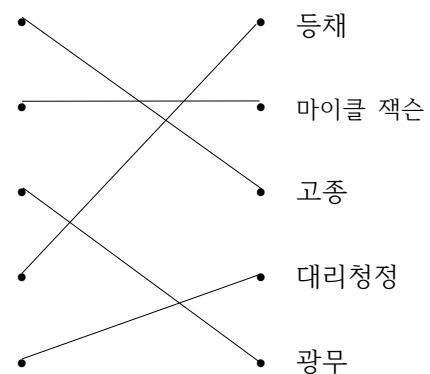
조선의 제26대 국왕이자 대한제국의 초대 황제, 순종의 아버지

팝의 황제라 불리는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박지민의 우상

고종이 대한 제국의 황제로 즉위한 해에 붙인 이름

취타대를 이끄는 집사가 사용하는 지휘봉

황제가 나랏일을 제대로 돌볼 수 없게 되었을 때 태자가 황제
대신 나랏일을 돌보는 일



2. 저스트 댄스

3. 더위를 피하기 위해

4. 古今一體 時門相連(고금일체 시문상련)

5. 취타대 단원들 또는 춘복 아재, 길삼 아재, 만식 아재, 황집사 등

6. 단발령이 내려진 이후이기 때문에

7. ②

8. 일본 군인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순이를 구해 주어서

9. 에케르트

10. 전통 음악을 연주하는 것에 자부심과 소신이 있었고, 진심이었기 때문에 등

11. 쑥스럽지만 기분 좋음, 뿌듯하고 기쁜 마음, 자부심을 느낌 등.

12. 억울하고 분했다. 일본군에게 분노를 느꼈다. 힘없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서러움을 느꼈다 등

13. 거짓 양위식이기 때문에, 원치 않는 양위식이기 때문에, 일본이 정한 행사여서 등

14. 한 나라의 왕이지만, 힘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에게 감시를 받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